

“하늘빛과 산 그림자가 분명히 비치네”

영지(3)

청평사에는 고려시대에 조성한 못이 남아 있어 사찰의 지당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청평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는 고려 광종 24년(973) 당에서 온 영현 선사(永玄禪師)로 선사는 경운산에 백암선원(白巖禪院)을 창건한다. 그 뒤 문종 23년(1068)에는 춘주도감장사(春州道監倉使)로 부임한 이의(李顛)가 폐허가 된 백암선원의 옛 터에 절을 지어 보현원(普賢院)이라 했으며, 선종 6년(1089)에 이의의 아들 이자현이 29세 때 관직을 버리고 입산해 산 이름을 청평산(淸平山)으로,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으로 바꾸고 선도량을 일구었다. 이자현은 입산하여 문수원을 중심으로 청평산 10여 곳에 암, 당, 정, 현 10여 채를 지었으며, 건물주변을 가꾸고 정원을 조성해 수도도량을 만들었는데, 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池園)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평사 못은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그 위치가 청평사 남쪽에 있어 남지(南池), 네모난 못이라는 뜻의 방당(方塘),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기 때문에 영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평사 못에 관련된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못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매월당집(梅月堂集)> 제청평산세향원남창(題淸平山細香院南窓)의 시에는 “네모난 못에 천층의 봉우리들이 거꾸로 꽂혀있고(方塘倒插千層岫)”라 하였다.

또, 구사쟁의 <팔곡집>에 실린 ‘영지’ 라는 시에는 “방형의 거울은 먼 봉우리를 찍어내고(方鏡印遙岑)”라 하였다.

우담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우담집(愚潭集)>에서는 “봉우리와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있고 산의 암자가 영지에 또렷이 비치는 것이 마치 그림과 같다(巒峯巒石壁 山庵到影池中 歷歷如畫)”라고 하였다.

또한 <허응당집(虛應堂集)> 하권 ‘쌍지’ 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못을 파서 옥경을 새롭게 여니

청평사에는 고려시대 조성 못 있어 1089년 이자현이 중창하며 조성 남지·방당·영지 등 명칭 다양 오전보다 오후에 투영효과 높아

맑아져 하늘의 빛과 산그림자가 못에 분명히 비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면 청평사 못은 그림자를 비치는 영지이며, 영지 가운데에서도 특히 산봉우리와 같은 자연적 물상을 끌어와 물에 비치도록 하는 산영지(山影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평사 영지의 투영효과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태양이 비치는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에 영지 북쪽으로 소나무 등 수목들이 울창하게 자라면서 부용봉과 건성암을 가리게 되어 산의 그림자가 부분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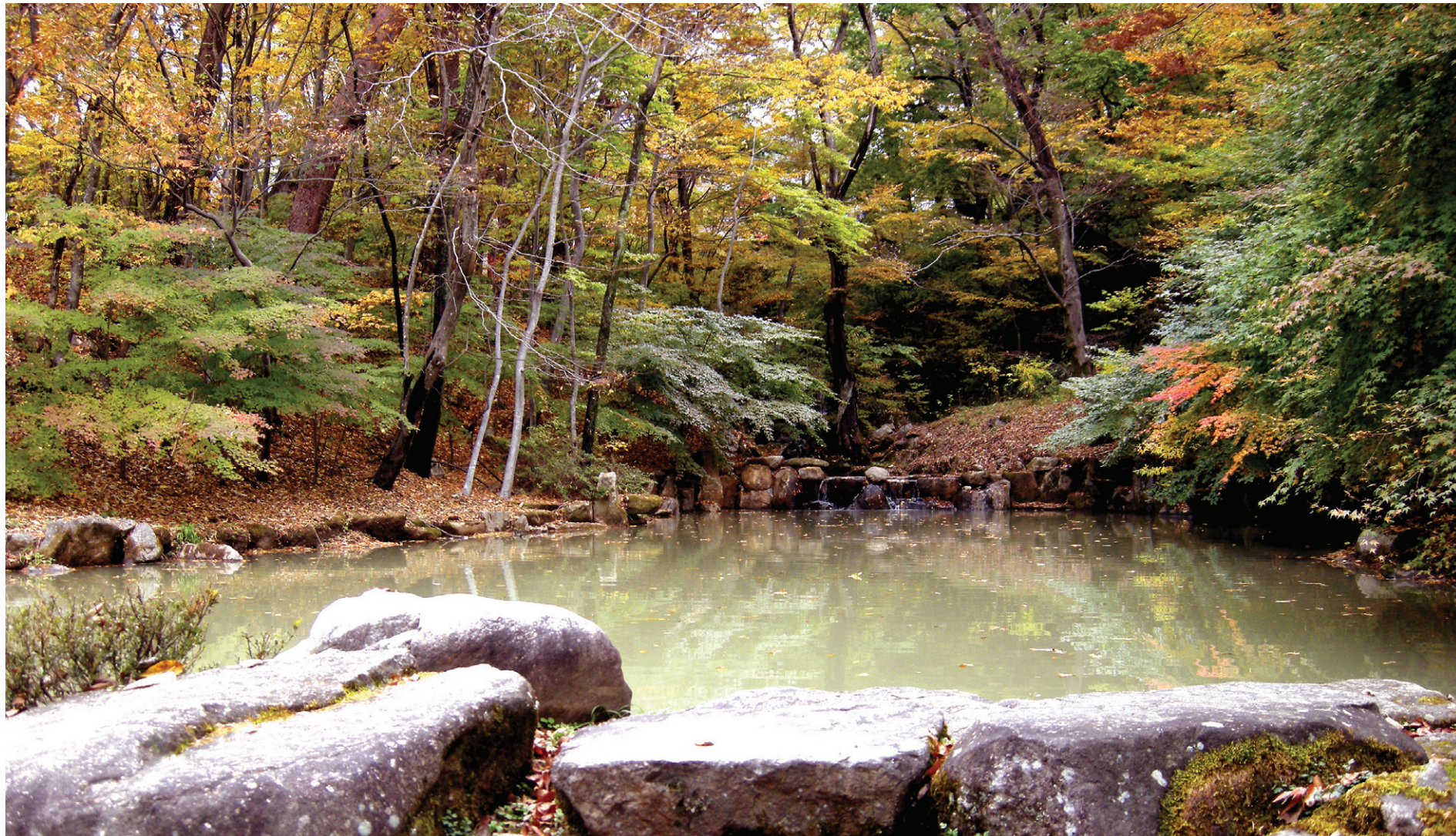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못 역시 영지의 기능을 가진다. 맑은 날 미륵사 남문지 밖 중심축선상에서 바라보면 미륵사 탑과 후면의 산봉우리가 확연히 수면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미륵사 영지는 탐영지이면서 동시에 산영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인사의 계담은 그 이름이 영지이다. 이 계담은 해인사 동측 편으로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아서 만든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지’ 라고 새긴 자연석 표지판이 있었다. 옛 문헌을 보면 해인사 후면의 가야산 봉우리가 영지에 비친다는 기사가 있어 해인사의 영지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 영지 역시 주변의 나무가 우거져 지난날처럼 가야산의 봉우리가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송광사 계담 역시 영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담의 잔잔한 수면에는 인경당 건물이 비치고 우화각과 무지개다리가 비친다. 특히 무지개다리는 수면에 원상을 그리고 있어 영지효과를 통해 불교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작품성이 매우 높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해인사 영지. 이 계담은 해인사 동측 편으로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아서 만들었다.



송광사 계담의 영지효과



미륵사 전면 영지에 비친 탑과 산봉우리



청평사 영지에 비친 산봉우리와 주변의 자연



해인사 영지. ‘영지’ 라고 새긴 자연석 표지판이 있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악어가죽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 짙~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 책신청 : (054)637-9810**